

**2023년  
8월 15일**  
(8월 7호)

# 월간 양지

**소식지 7호**

1

**초심을 잃으면 꿈의  
방향을 잃는다.**

/ 입시전략실

• 퍼넨곳/

양지메가스터디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 (031) 326-5000

## 양지 광장

🌸 **오늘을 여는 글**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은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란 없다. 운명이란 그런 것이다. 강인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강인한 사람은 운명이 도전해올 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외치며 맞선다. 이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천빙랑의

《나를 이끄는 목적의 힘》중에서

❖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 더 큰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쳐도 포기하지 않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살면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기고 해결하면서 살게 마련이지요, 그 어느 쪽 일이라도 어차피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좋은 일은 더 크게, 힘든 일은 작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초지일관...한 점을 향한 힘.**

정말 바라보기 시작한 꿈을 위해 망망대해의 풍파를 벗어나 여길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길 소망합니다.

**풍파 넘어의 꿈의 대지를 그리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는 양지13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4 大入전형**

◆ **논술전형**

■ **탐구반영 방법**

2024학년도 <b>의치한약수</b> 탐구반영 방법			
	2과목 반영	2과목 반영 소수점 절사	상위 1과목 반영
의예	중앙대 아주대 인하대 부산대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치의예		경북대	경희대
한의예			경희대 부산대
약학	고려대 (세종)		가톨릭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수의예		경북대	건국대
<b>&lt;탐구 각과 반영&gt;</b> 연세대(미래)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 성균관대 약학과			

◆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

**영향력 결과(진학사 분석 결과)**

▶서울대가 정시에 도입한 교과평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진학사가 분석한 자료를 2023년 3월 2일에 에듀진에서 보도한 자료를 정리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총 136명 모집에 388명이 지원을 했는데 역전현상은 3개 모집단위에서 **6명**이 발생했고, 일반전형은 1,209명 모집에 3,894명이 지원해서 20개 모집단위에서 **27명**이 발생했다. **지역균형전형**은 모집인원 기준으로 4.4%, 일반전형은 2.2%가 역전되었다. 단순히 보면 교과평가 비율이 높은 지역균형전형의 역전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진학사의 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대의 점수 환산 방법 중 **모집단위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크게 되면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는데 이 경우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한다.** 최고점과 1단계 통과 최저점의 차이가 **50점 이상 났던 6개 모집단위에서 모두 역전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한다. **2024학년도에는 과탐II 필수 조건이 폐지되므로 2023학년도보다는 최저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고점과의 차이는 적어질 것이다. 교과평가의 영향력은 한 번의 결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서울대가 선택한 정성평가 방식은 불안정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너무 크게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2023학년도 서울대 교과평가에 따른 역전형상 발생한 모집단위	
전형	모집단위(인원)
지역균형	인문계열(1), 공과대학(3), 의예(2) 합계 : <b>3개(6명)</b>
일반	인문계열(3), 건축(1), 경제학부(2), 물리(1), 지구환경과학부(1), 간호대학(1), 경영대학(1), 건설환경공학부(2), 기계공학부(1), 전기정보공학부(1), 컴퓨터공학부(2), 화학생명과학부(2), 원자핵공(1), 산림과학부(1),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1), 영어교육(1), 사회교육(1), 물리교육(1), 의예(1), 수의예(2), 합계 : <b>20개(27명)</b>

※표:진학사 추정자료

전형상 교과평가의 반영비율이 일반전형은 20%인데 비해, 지역균형을 40%나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균형의 영향력이 더 커야할 듯하나, 실제 결과에서는 전형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균형의 경우 고교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추천하지는 않았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공개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서울대 정시의 경우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모두 교과평가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2024학년도에도 서울대 정시합격을 위한 제1의 조건은 수능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음을 여는 글

가까이에서 있으면서도, 매일 만나면서도 그냥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하고 싶지만 참았던 이야기, 헤어지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이들의 따듯하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무엇을 하기 힘듭니다.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일으키며**

### 저항하니깐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가 맑고 생각이 없을 때 바로 그 일을 해버리세요 시간 지나면 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람〉 헤민스브.

- 우리는 여기 양지생활하면서 어느 날은 멍 때릴 때도 많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간혹 그럴때도 있고 어떨때는 공부가 너무너무 잘되는 것처럼 느낄때도 있고 제가 최근에야 느낀거지만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것저것 생각 말고 오직 11월 수능일만 바라보고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탭니다.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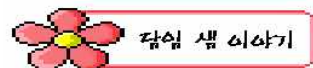
**같은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만의 꿈과 희망을 보고 잘 이겨내고 서로 으쌰으쌰 하도록 합시다.

양지9기 - 익명 -



-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을 극복한다.**
-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내 비만 가져주는.  
당신이 있다.

▶**“알고 있어? 혹시 비를 맞고 있는 듯 어려움만 있는 듯이 생각되지?”**  
지금 너희들의 비를 대신 맞아주는, 가려주고 있는 너희 주변의 사람.

**바로 부모님과 너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 당연해 보일 때 떠올려보렴.

**내 비를 가려주고 있음을.**

## 2024 대입전형계획

### ① 전년도와 다르게 무엇이 바뀌었나?

#### ① 의대 입시 변경 사항

경북대	시	(교과) 전형: 정성평가 신설 (교과80+면접20→ 교과80+서류20) 논술전형: 수리논술+의학논술(신설) :3합3(2)절사→3합4(2)절사
	정시	면접 실시 : 수능 100 + 인·적성 면접 (P/F) *면접:30분, 3개면접실
고려대	수시	학교추천: 지원 자격 변경(→ 졸업예정자), 영재학교 등 지원 불가 학업우수형:1단계배수 축소(6배→5배수) 계열적합형: 2단계 면접 비율 확대(40%→50%), 상황·제시문기반 면접 학교추천과 학업우수형 간 중복지원 불가
	정시	교과우수 전형 신설 (12명) :지원자격은 2016년 이후 졸업자이며 수능80 + 교과20 + 면접(P/F)으로 선발
서울대	수시	수능 응시 기준 세분화 지역균형: 수능기준 과탐 필수응시 폐지
	정시	수능 응시 기준 세분화 자연계 : 과탐 필수 응시 폐지 가산점 : 과탐+세 3점, 과탐+세 5점
성균관대	수시	학과모집 전형 : 1단계 선발 배수 확대 (3배수 → 5배수), 2단계면접반영비율확대(20→30) 논술전형 수능응시 기준 변경과 최저기준 완화 :수학 확률과 통계 포함, 탐구는 과탐2개 또는 과탐+사탐, 수능최저기준 완화→국/수/영/탐/탐 5개 중 3합4
	정시	수능 응시 기준 변경 :수학 확률과 통계 포함, 탐구는 과탐2개 또는 과탐+사탐 영역별 가중치 변경(영어→영역별 비율로 반영) :국/수/영/탐=30/35/10/25 한국사: 감점제로 적용
중앙대	수시	전형 명칭 변경(다빈치형인재 → CAU융합형인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변경(학업,진로,공동체역량) 수능최저기준: 영어2등급까지 1등급격용, 과탐 선택 제한 폐지 논술전형: 과학논술폐지→수리논술
	정시	과탐 과목 선택 제한 폐지 (동일과목 +세 불가 → 가능)

# 선배는 Vision 2023 이렇게 공부했다

☑ 오채린 양지12기  
(연세대 약학과 합격)



들어가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작년 12기 양지메가스터디에서 공부했던 오채린입니다. 저는 작년 4월쯤에 입소하여 수능 때까지 양지 메가스터디에서 생활했고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에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힘들었던 기억까지 모두 녹아있는 이 장소는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큰 이바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희로애락을 느끼고 성장했던 곳에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 자 적어봤습니다.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고 게실듯하여 멘탈과 관련된 이야기와 학습법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처해있는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후덜덜하게 가는 양지 생활 속 가벼운 휴식 삼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공통적으로 여겼던 과정.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는 3가지 요소로 정리됩니다. 바로 실력, 시험 운용 능력,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실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중요성을 알고 매일 치열하게 공부하고 게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학습법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운용 능력은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시험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분배하는 능력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풀 순서와 배당할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의 방어기제 등을 정하여 시험을 전략적으로 해쳐 나가는 것입니다. 큰 틀을 정해놓는 것은 더 체계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흥분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웬만큼 대담한 학생이 아닌 이상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실력의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조금 더 철저한 친구들은 시험 운용 능력까지는 챙깁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눈앞에 보이는 성적에 마음을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평화는 챙기지 못합니다. 저는 멘탈이 그리 강한 편이 아니고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험생활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고민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았고 시간을 허투루 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감을 수직 하강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준 것은 주간학습계획표였습니다. 아마 학원에서 쓰게 할 수도 있는데 홍보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계획표를 계획의 목적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제 담임선생님께서 주간학습계획표를 강조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귀찮고 플래너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간학습계획표가 한 장씩 모이면서 제가 공부한 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이 들 때마다 주간학습계획표를 모두 꺼내서 한 장씩 읽었습니다. 자신에게 너는 열심히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결 방법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열심히 한 자신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실력상승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계신 과정은 1년을 하루에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든 평가들이 펼쳐진다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이 힘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자신의 하루, 한 시간, 일 분을 평가하고 자책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에 마음을 감아먹는 것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사실 수험생활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의 학습법과 상대가 다르고 해당 과목 선생님들께서도 상담을 해주실 것이므로 그

냥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부법을 따라 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과목별 학습법 이전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학습법은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의 균형을 지키게 해주고 전 과목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줍니다.

## 수능 준비

### 국어 영역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소설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국어를 잘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어는 저에게 수능을 한 번 더 보게 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과목입니다. 제가 국어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정적으로, 유동적으로'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동시에 하라니 무슨 뚱뚱자같은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우선,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강령입니다. 예시는 괄호를 치거나 장소는 네모를 치는 등 내가 지문을 읽을 때의 행동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정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고정적인 행동강령으로 80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동강령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장에서의 행동들을 정하고 수정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국어 시험도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속히 말하는 멘붕에 빠지지 않고 유동적으로 80분을 구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EBS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BS는 사실 문학에서의 빠르고 자신감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EBS의 모든 작품을 공부하되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저는 브레인 수업들 들었고 브레인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들은 따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어 선택한 방법인데, 이 점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출제된 작품들을 간간히 정리하는 정도로 학습

했습니다. 그리고 6모, 9모, 수능 전에는 모든 작품을 한 번 더 꼭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품들을 암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꼭 살펴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들을 보는 것입니다.

#### 수학 영역:

국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다면 수학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간략화하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푼다'입니다. 개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각지대가 매우 많습니다.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제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겠다는 발상들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상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암기해서라도 개념과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많은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학원에서 주는 것부터 다 풀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N제와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소 2번씩은 풀었고 모의고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모의고사 노트는 그 모의고사를 푼 과정을 적는 노트입니다. 문제를 푼 순서와 소요된 시간을 적고 맞혔더라도 막힌 문제는 기록을 해냈습니다. 모의고사 노트는 모든 과목에서 작성했지만, 수학에서 가장 열심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 노트를 적었습니다. 사소한 계산실수부터 시작해서 멍청한 착각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실수가 보이고 문제를 풀 때 이를 자동으로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실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실 수학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모두 실수 없이 맞추는 것입니다. 실수

노트는 이 점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영어 영역

제가 영어에 있어서 지킨 유일한 공부법은 '조금씩이라도 매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반드시 매일 최소 8문제는 풀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제외하고는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를 성실하게 하며 진도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에 학원의 수업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 -양지 후배들을 위한 조언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걱정과 고민이 많은 만큼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송 다큐에 나오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페이스대로 살았습니다. 심야자습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는 웬만하면 휴식을 취했습니다. 가끔은 산책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중요시하게 된 삶의 요소는 바로 여유입니다. 수험생은 밥만 먹고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며 집착하지 말고 여유를 지켜주세요.

여름은 수험생들의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교재, 학습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줄어드는 디데이를 보며 불안감이 커집니다.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일 년을 즐겁게 보낼 것'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잡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박스를 상상하고 걱정과 고민이 그저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오히려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은 웃긴 말일 수 있지만 월한다고 대학에 붙는 게 아니고 월 안한다고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에 의미부여하면서 조금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세요. 재수학원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아마 작년에 쓰디쓴 실패를 맛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속의 분노를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향한 분노, 평가원을 향한 분노 등 이러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더라고요. 자신을 향한 분노는 매일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향한 분노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바꾼 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해피엔딩도 고난과 시련을 헤쳐 나간 후 맞이해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과정이지, 절대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되새긴 말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이는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에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꾸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지 못한 계획에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사실상 결과는 자신이 만든 다기보다는 그저 기다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 -글을 마치며

누군가가 저에게 재도전을 후회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이루어보겠다고 노력한 시간들이 뿌듯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능이 끝나고 나면, 노력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미련이 없으며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